До: fan@jype.com

Тема: Letter from Ukrainian fandom addressing issue of popularization of Russian literature and culture

Слова:

Greetings,

We are writing regarding a segment in the video " [Stray Kids : SKZ-TALKER GO! Сезон 6] Ep.06 Mexico City," in which Hyunjin mentioned a book he had read—a work by Fyodor Dostoevsky. Dostoevsky is not "merely a classic author"; he was an ideologue of Russian imperialism who justified wars of conquest and the subjugation of other nations. It is precisely this Russian imperialism that elevated him to the status of a "classic" in world literature. Today, Russia—a terrorist state—uses his name as a propaganda weapon, all while killing us, the Ukrainian people, on a daily basis. Any promotion of Russian figures to an audience of millions serves to rehabilitate the reputation of the aggressor, which is absolutely unacceptable to us! Furthermore, we wish to emphasize and remind you that Russia is an active military partner of North Korea.

We ask you to be mindful of what you promote to such a large audience, given the context of the largest war in Europe, which has been ongoing for over a decade.

Regards,
Ukrainian fandom

До: fan@jype.com

Тема: 러시아 문학 및 문화의 대중화 문제와 관련하여 우크라이나 팬덤이 보낸 서한

Слова:

안녕하세요.

영상 "[Stray Kids : SKZ-TALKER GO! 시즌 6] Ep.06 멕시코시티" 편에서 현진 님이 읽었다고 언급한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의 저서와 관련하여 글을 드립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단순히 '고전 작가'에 머무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정복 전쟁과 타국에 대한 예속을 정당화했던 러시아 제국주의의 이데올로그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러시아 제국주의가 그를 세계 문학의 '고전' 반열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오늘날 테러 국가인 러시아는 도스토옙스키의 이름을 선전 도구로 활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 우크라이나 국민을 매일 살상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시청자에게 러시아 인물을 홍보하는 것은 곧 침략자의 평판을 복구해 주는 행위이며, 이는 우리에게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울러, 러시아가 현재 북한의 군사적 협력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상기시켜 드립니다.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유럽 내 최대 규모의 전쟁이라는 상황을 고려할 때,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무엇을 홍보하는지에 대해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 팬덤